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 중학교 지유학사지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엠티처

www.m-teacher.co.kr

vol.18 | 2018년 3월호

## 영상으로 배우는 영어

영어를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흥미도 잡고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지요. ‘재미’와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영어 수업.

영상을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해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교사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한 교사의 조언도 들어봅니다.

### 경기 지산중 이윤미 교사의 영상 활용 영어수업 화가의 삶 다룬 영상 보며 영어실력 쑥쑥!



모네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보고 모둠활동을 수행하는 경기 지산중 학생들. 지산중 제공

“Claude Monet was born on November 14th 1840, and would become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Impressionism(클로드 모네는 1840년 11월 14일에 태어났으며, 그는 인상주의의 창시자중 한 사람이 됐다).”

경기 지산중의 영어 수업시간. 학생들은 프랑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일생을 담은 영상(이하 모네 영상)을 시청하고,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전기를 모둠원과 협력해 읽으며 위대한 화가의 일생을 탐구한다. 그리고 이들의 일대기를 타임라인 형태로 재구성한 뒤, 위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상의 회고록을 써보는 활동도 한다.

이윤미 영어 교사는 중2 영어 교과서 8단원 ‘Great Friends and Painters’의 본문 내용을 학생들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총 5차시에 걸쳐 영상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진행했다. 8단원 본문에서는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와 르누아르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는데, 학생들은 영상과 전기를 통해 두 화가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본문 내용을 보다 다채롭게 이해했다. 이 교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 위대한 화가의 삶, 깊이 있게 탐구

1, 2차시에 학생들은 본문 학습 전 모네 영상을 시청하며 그의 삶을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영상을 집중해서 감상하도록 영상 내용을 영어 문장으로 풀어 적고, 곳곳에 빈칸을 뚫어 프린트물로 배부했다. 학생들은 영상을 보며 △모네의 출생연도 △모네 아버지의 직업 △모네가 학교에서 좋아한 과목 등을 영어로

작성하며 빈칸을 채웠다. 영상 시청을 마친 후에는 모네의 일대기를 정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학생들은 세로축 또는 가로축을 그리고 시간 순으로 모네의 일생을 영어문장으로 작성해본다.

이 교사는 “학생들은 모네에게 일어난 사건을 년도별로 정리하면서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며 “영상 시청 후 본문 학습(3차시)을 진행하는데, 모네를 이해하고 본문을 학습하니 단순히 모네의 그림만 보았을 때보다 본문에 더 큰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고 말했다.

4차시에는 르누아르를 탐구한다. 이 교사는 르누아르 전기를 발췌해 프린트물로 만들고, 학생들로 하여금 ‘직소(Jigsaw)’ 방식으로 이를 읽게 했다. 직소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4인 1조로 모둠을 이뤄 프린트물을 네 개의 파트로 분배해 읽는다. 1번 파트를 맡은 학생은 다른 모둠의 1번 학생들과 모여 해당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본래의 모둠으로 돌아와 학습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 직소활동을 마친 후에는 모네와 마찬가지로 르누아르의 일대기를 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한다.

이 교사는 “학생들은 어려운 글을 혼자 읽으면 금방 포기하지만 직소 활동을 하면 친구와 힘을 합쳐 학습하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도전하게 된다”며 “또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모둠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읽기 활동에 참여하며, 협동심과 배려심도 기를 수 있다”고 말했다.

## 타인의 인생을 통해

### 내 미래도 설계!

마지막 5차시,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가상의 타임라인 형태로 작성하고, 이를 회고록으로 바꿔 써보는 활동을 했다. 20세에 유학을 떠나겠다는 학생, 의대에 진학해 졸업 후 의사가 되겠다는 학생도 있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은 모네와 르누아르의 일생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자신의 인생까지도 설계했다”며 “모네와 르누아르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들이 잘하고 잘못된 점을 관찰하며 위인도 한 명의 인간임을 깨달았다. 또한 그들의 인생을 통해 자신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회고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며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한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표현해 보며 영어 표현 능력도 기를 수 있었지요.”(이 교사)

▶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mailto:hj_kim86@donga.com)

교사의 수업지도 도움말

## “영상 시청 전, 학생들의 흥미 돋우어야”

### Q. 수업을 진행할 때 유의할 점은?

학생들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상 길이는 최대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긴 영상을 활용할 때는 수업에 필요한 부분을 미리 체크해두면 수업 진행에 효율적이다. 또한 영상 시청과 함께 빈칸

채우기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영상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 학생마다 듣기 실력에 편차가 있으므로 영상을 보며 찾아야 할 단어, 소재, 주제가 무엇인지 사전에 안내해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다.

**Q. 수업의 효과는?**

학생들은 영어 학습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실제적인 자료를 접하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영어가 꼭 필요한 도구임을 인식하게 된다. 실제로 수업시간에 배운 영어 단어와 표현, 문법들이 영상에 등장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가 커지게 된다.

**Q. 영어 수업에서 영상을 활용하려는 교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영어 영상은 본문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지난 학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시간 15분을 할애해 영화 ‘주토피아’를 5분간 시청하고, 핵심 내용을 영어문장으로 요약한 뒤 주요 장면을 그리는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영상을 시청하며 수업시간에 배운 구문을 자연스럽게 복습하고,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며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영상 시청 후 학생들이 핵심 내용을 영어문장으로 요약할 때 교사는 지나치게 틀린 문법과 단어를 교정하는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학생들이 위축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영어로 표현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좋다. 만약 대부분 학생이 동일한 문법을 틀린다면 전체 학생에게 해당 문법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자.

▶이윤미 경기 지산중 영어 교사